

간신히 턱걸이 한 전기동

25 June 2014

윤성철 02.788.7134 basemetal@hyundaifutures.com

● 전일 주요 동향

✓ **美 증시 하락.** 긍정적인 주택, 소비자신뢰 지표 호재가 이라크 사태에 따른 불안감 고조 영향에 상쇄되며 하락세로 마감. 거기에 최근 상승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한 것도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듯.

美 Dow -0.70%.

✓ **中 증시 상승.** 중국 증시는 지방정부들이 고량주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량주 관련주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음.

中 상해종합지수 +0.47%.

✓ **美 달러, 주요통화대비 강세.** 예상보다 강력한 미국의 신규주택판매 및 소비자신뢰지수로 연방준비제도가 보다 매파적인 성향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며 소폭 상승.

달러/유로 1.3605→1.3606, +0.01%, 엔/달러 101.93→101.97, +0.04%

✓ **유가(WTI) 하락.** 장 초반 이라크 내전 격화 우려감과 지난 주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세 전망에 지지받았으나 좁은 박스권 움직임 속에 하락 반전. 시장분석가들은 비록 이라크 남부지역의 원유시설이 영향을 받지않고 있지만 내전 상황이 지속될 수록 유가는 지지받을 것으로 전망.

WTI -0.13% \$106.03, Brent -0.80% \$110.39.

간신히 턱걸이 한 전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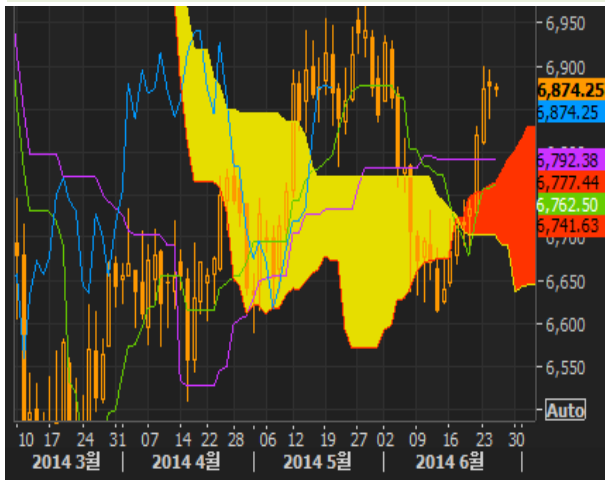
간신히 턱걸이 했다. 전일 전기동은 하락을 상승을 반복했지만 결국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아직 중국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달러강세가 발목을 잡았다. 물론, 주관적으로 볼 때 이는 상승재료일 수 있지만 시장은 거래통화인 달러의 강세가 신경 쓰이는 눈치이다. 전기동은 전일대비 0.05% 상승한 \$6,877를 기록했다.

해석이 바뀐거지 상황은 그대로다. 전반적인 상황은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나쁘지 않다. 중요한건 얼마전까지 가장 큰 악재였던 칭다오 항만당국의 조사가 큰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다. 일부 타격이 있겠지만 더 이상 시장을 흔들 것 같진 않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중국 경제다. 중국내 경기상황이 개선되면 향후 수요증가에 대한 기대도 커지기 때문이다. 우려했던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악재로 부각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중 당국이 얼마나 시장변화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냐이다.

당장 부동산 시장이 이슈로 부각되었다. 현재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2년여만에 최악의 '현금부족사태(Cash crunch)'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거주용 부동산의 공급과잉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둔화 때문이다. 물론, 이는 당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제재와 대출 규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결국 다시 한번 중 당국의 결정에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정책적 지원이나 유동성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올 하반기 시작부터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전기동 가격만 놓고 볼 때 수급상황 개선과 상관없이 강한 저항선에 막혀 계속 밀리는 모습이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승을 지지하지만 확실히 가격을 끌어올릴 재료가 없기 때문이다. 뚫고 올라간다면 상관없겠지만 계속 밀린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힘들다고 본다. 거기에 중국 상황도 다시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일간 일목균형표로 본 전기동 가격



출처: 로이터, 현대선물

[그림 2] 월간 일목균형표로 본 전기동 가격



출처: 로이터, 현대선물

전기동 예상레인지: \$6,513~7,075.

귀금속

장 중 2개월래 최고가 기록한 금.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금 선물 8월물은 온스당 2.9달러 전진한 온스당 1321.30달러에 마감.

하지만, 예상보다 강력한 미국의 신규주택판매지표와 소비자신뢰지수가 발표되면서 금과 은은 상승폭을 축소. 금은 지난주 3개월래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기록. 이라크 내전 격화로 유가가 9개월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의 도비시한 입장 표명으로 숏 커버링이 촉발되며 금의 상승 랠리를 연출. 독일의 6월 Ifo 재계신뢰지수가 이날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발표된 뒤 투자자들이 유럽 주식에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옮겨 타면서 금은 지난주부터 이어진 상승흐름을 계속 유지.

세계 최대 금 지수상장펀드(ETF)인 SPDR 골드 트러스트의 금 보유고는 23일(월) 2.4톤 늘어난 785.02톤으로 집계. 지난달 SPDR의 금 보유고는 2008년 이후 최저인 776.9톤까지 축소됨. SPDR의 금 보유고 증가는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 다만, 최대 금 시장인 중국과 인도의 물리적 금 수요는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매입을 미루고 있어 여전히 저조한 상황.

✓ DATA

● LME PRICE(3M)

LME	시가	고가	저기	종가	Change(\$)	%
전기동	6,882.3	6,895.0	6,840.0	6,877.0	3.5	0.05%
알루미늄	1,886.8	1,901.0	1,873.3	1,893.8	6.8	0.36%
아연	2,182.5	2,195.0	2,166.0	2,176.3	-9.3	-0.43%
납	2,173.0	2,192.0	2,165.0	2,181.8	5.8	0.26%
주석	22,450.0	22,588.0	22,425.0	22,552.0	102.0	0.45%
니켈	18,355.0	18,424.0	18,096.0	18,180.0	-196.0	-1.08%

● LME STOCKS

LME	금일재고	Change (+/-)	Change (t)	On Warrant	Cancelled	In	Out
전기동	157,725	DOWN	850	117,500	40,225	100	950
알루미늄	5,072,125	DOWN	5,150	2,039,625	3,032,500	0	5,150
아연	671,250	DOWN	2,075	613,300	57,950	0	2,075
납	192,525	DOWN	50	180,600	11,925	0	50
주석	10,845	UNCH	0	8,340	2,505	20	20
니켈	305,388	UP	786	193,446	111,942	1,056	270

● PRECIOUS METAL PRICE

Prec. Metals	LBMA Fixing		LBMA Lending		SPOT		COMEX Prec. Metal	
	AM	PM	1M	2M	Last(Spot)	Net Chg.	LAST	Net Chg.
GOLD	1,323	1,319	0.10	0.10	1,313	1,313	1,312	-8.90
SILVER	2,112	2,075	0.53	0.53	21	21	0	0.00
PLATINUM	1,465	1,469			1,465	1,465	1,461	-10.90
PALLADIUM	827	828			827	827	832	0.00

전기동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알루미늄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아연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납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주석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니켈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할 고객의 투자사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